



이 악문 호랑이, 야구 새 봄 연다

KIA 오키나와 전훈캠프 마무리

그라운드와 봄은 일찍 온다. 광과 오키나와에서 2014년을 준비했던 KIA 타이거즈의 스프링캠프가 끝났다. 4일 귀국길에 오르면서 막이 내린 49일간의 대장정, 이미 그들의 봄은 시작했다.

글·사진=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이대형·용병 트리오·신인 등
새얼굴이 일으킨 경쟁 바람
선후배 소통의 야구로 '훈훈'

◇2년의 실패, 세 번째 캠프
캠프의 분위기는 늘 좋다. 치열하고 자신감이 넘치고 빈틈이 없어 보인다. 가을 잔치도 문제 없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다.
뭔가 조금씩 달라져있는 것도 같다. 팀워크는 더 좋아진 것 같고 전력도 더 탄탄해진 것 같다.
이상한 것은 개막과 함께 이내 이런 환상이 깨진다는 것이다. 누구를 놓아야 하나 고민하던 라인업에도 이내 구멍이 생긴다. 거침 없을 것 같던 덕아웃 분위기도 조금씩 얼어붙는다. 수많은 고비와 위기를 넘어가며 그렇게 시즌이 흘러가는 것이다.
어찌 됐든 스프링 캠프는 꿈을 꾸는 시간이다. 프로 선수로 화려한 그라운드를 밟는 꿈, 팀의 주축 선수로 우뚝 서는 꿈 그리고 가을 잔치에서 환호하는 꿈.
희망으로 시작해서 실망으로 끝난 지난 2년이었다. 그만큼 선동열 감독이 지휘한 이번 세 번째 캠프는 지난 2년처럼 강렬하지는 않았다. 우승을 얘기하던 지난 캠프와 비교하면 평온하다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익숙하던 얼굴 예이스 윤석민이 없었고 톱타자 이용규는 다른 유니폼을 입고 덕아웃을 찾았다. 좌완 진해수와 해결사 김상현이 SK 선수로 진정을 찾아 옛 동료와 포용을 나눴고, 불펜 마당쇠로 역할을 했던 신승현은 LG 캠프에 있었다.

◇새 얼굴이 만든 경쟁의 바람
낯선 캠프이기도 했다. 새 얼굴이 이번 캠프의 핵심이었다. '슈퍼 소년' 이대형이 고향팀 유니폼을 입고 달리고 있었고, 전천후 내야수 김민우가 2·3루는 물론 유격수까지 종합무진 재기를 노리고 있었다.
외국인 트리오도 낯설었다. 방방이를 든 외국인 선수는 특히 낯선 풍경이었다. 올 시즌 프로야구의 외국인 선수 제도가 3명 보유 2명 출전으로 바뀌면서 투수 일색이던 외국인 선수들 틈에 외국인 타자가 등장했다.
사람 좋게 생긴 필은 푸근한 인상처럼 '모범생'으로 통했다. 선동열 감독이 "나왔으면 하는 애들은 안 보이고 필만 웨이트장에 보인다"고 웃을 정도로 성실함으로는 최고라는 평가를 받았다. 국내 선수들에 비해 조금은 더 허용되는 자유도 필은 마다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산책을 하는 시간에도 필은 가장 먼저 옷을 챙겨 입고 나와 선수들을 기다렸다.

두근두근 생애 첫 스프링 캠프를 치른 새내기들도 있었다. 아직은 프로 선수라는 타이틀이 어색한 신인 내야수 강한울·외야수 박준태·투수 김지훈은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른 시간을 보내고 왔다. 신고선수 신화에 도전하는 내야수 김광연에게도 처음 찾는 스프링 캠프였다.

첫 캠프였지만 이들은 만만치 않은 실력과 노력으로 캠프에 경쟁 바람을 일으켰다.

◇분위기 메이커를 자처한 선배들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이는 캠프에도 작은 변화가 있었다. 경기장에 흐르는 음악, 옷은 선배들이 그 변화였다. 시즌이 끝난 후부터 KIA는 '소통'을 얘기했다. 주장 이범호가 우선 말한 것도 소통이었고, 선동열 감독이 얘기하는 부분도 소통이었다.

선배들이 먼저 웃었다. 분위기 메이커는 고참들이었다. '응원단장' 서재응의 호쾌한 웃음은 여전했고 송은범의 웃는 얼굴도 한결 같았다. 훈련이 힘들어질 때쯤 터져 나오는 선배들의 농담에 후배들도 같이 웃었다. "이렇게 해보는 것은 어때냐?"는 말과 함께 선배들이 그들의 노하우를 전수했다. 동료이자 선배이자 때로는 코치가 되어 선배들이 먼저 움직였다.

주장 이범호의 입도 쉴 새가 없었다. 라커룸에서 그라운드에서 이범호는 후배들과 얘기를 나누며 소통을 했다. 외국인 선수들을 챙기는 것도 이범호의 몫이었다. 아는 단어만 사용하는 단순한 대화라고는 하지만 제법 많은 대화가 오고 갔다.

김선빈은 DJ가 됐다. 음악이 흘러나오는 경기장이 되면서 근엄하던 훈련 분위기도 활기가 돌았다.

덕아웃 뒤쪽으로 한발 물러나 있던 선 감독은 한결 부드러워진 표정으로 그라운드에 섰다. 후회없는 시즌을 위해 카리스마는 버렸다. 선수들도 그 변화를 몸으로 느끼고 있다. 형님 같은 이대진·홍세완·김종국 코치도 다독다독 캠프를 이끌었다.

지난 시즌의 처참했던 실패와 전력 누수로 우승후보 단골 손님이었던 KIA는 올 시즌 전력 언저리로 밀려나 있다. 오히려 선수들은 즐거분 하다. 부담없이 묵묵히 가면서 마지막에 웃겠다는 각오다.

49일간의 시간 동안 품고 키워온 꿈이 곧 그라운드에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데니스 홀튼



"식스팩 복근을 향하여..."



"등번호 기억해 주세요"



진해수-양현중 "반갑구만, 반가워~"

보약, 홍삼은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
·마음에 평안
·음식조절입니다

건강한 생활! 장수의 비결!

북고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6년근 홍삼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062-369-9227



두충오가피

활기찬 삶! 생활의 활력소!
60포 → 120,000원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